

2024. 5. 1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1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김인숙	02-2133-2910
디지털서비스팀장	류희영	02-2133-2950
담당자	권영호	02-2133-2947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mvoting.seoul.go.kr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6쪽

시민이 직접 정책 투표... 400만 시민참여 '엠보팅', 이용 편한 포털형태로 개편

<누적>

- 디자인·사용자 인터페이스(UI) 변경으로 직관적이고 쉽게 이용 가능... 10년 만에 재단장
- 위·변조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 적용, 전자 투표의 정당성 및 객관성 강화
- 특정대상이 아닌 일반시민의 정책투표, 우리끼리 투표 만들기 등 시민참여 확대

- 서울시 대표 전자투표시스템인 '엠보팅'이 10년 만에 새단장을 했다.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은 물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차단,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 '엠보팅(mVoting)'은 모바일(Mobile)과 보팅(Voting)의 합성어로 서울시와 시민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쌍방향 소통창구다. 2014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해 올해 10년을 맞은 엠보팅은 서울시 중요 정책과 행사 등에 관련된 설문조사와 실시간 투표 및 결과공개 등에 활용되고 있다.
- 엠보팅의 투표참여자는 4월 현재 (누적)390만 명이며 가입자 수는 54만 명이다. 현재까지 정책투표 3,864여 건, 우리끼리 투표 8,618건, 시민투표 391만 건이

진행됐고 참여가 가장 많았던 건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매년 1만 명이상이 투표했다.

(’24.4.30.기준, 누계)

정책투표	우리끼리투표	투표참여	회원가입
3,864건	8,618건	3,918,323명	545,612명

- 이번 개편은 모바일 기기 일상화와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메뉴 아이콘 등을 포함해 친숙한 포털 형식으로서의 변화가 핵심이다. 시민들의 편리하고 빠른 이용을 돕고 더 활발한 의견수렴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 (로고) 핸드폰의 모바일을 강조한 ‘엠(M)’을 조합(워드 마크),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신선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 전달
 - (화면)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메뉴 아이콘을 상단에 배치하여 직관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포털 형식으로 편리성 강조

-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투표정보의 위변조를 차단하고 전자투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투표 종류도 ▲정책투표 ▲우리끼리투표 ▲위치기반 지정투표(장소, 구역 설정 가능) 등으로 다양화해 소통방식을 확대했다.
 - 정책투표: 서울시 주관, 시·자치구 참여예산, 작품선정, 만족도 조사 등
 - 우리끼리투표: 시민 주관, 일상 주제로 시민의견 수렴(찬반투표, 자유주제 등)
 - 위치기반투표: 특정장소에 모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투표, 의견수렴
(서울광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참가자 대상 이벤트, 의견수렴 등)

- 투표 참여방법도 간단하다. 엠보팅에 접속해 투표과제를 선정하고 회원가입 없이도 간단한 본인인증 과정만 거치면 된다.

- 참여 방법은 서울시 엠보팅(mvoting.seoul.go.kr) 접속 → 투표과제(정책, 우리끼리 등) 선정 → 본인인증 → 투표완료 순이다.

정책투표	우리끼리·찬반(VS) 투표
	
<p>시(市) 정책에 대한 반영·참고용 투표 (최고의 건축물 디자인 선정, 서울우수한옥 등)</p>	<p>시민들이 자유롭게 투표 발제 및 의견 제시 (기후 동행 카드 청년할인제도 확인 등)</p>
위치기반 투표(구역)	위치기반 투표(장소)
	
<p>구역(면) 설정하여 해당 구역 내 투표 (각 자치구 및 특정 지역 내 설문 투표)</p>	<p>특정 장소(점) 기준 반경을 설정하여 투표 (행사 및 이벤트성 설문 투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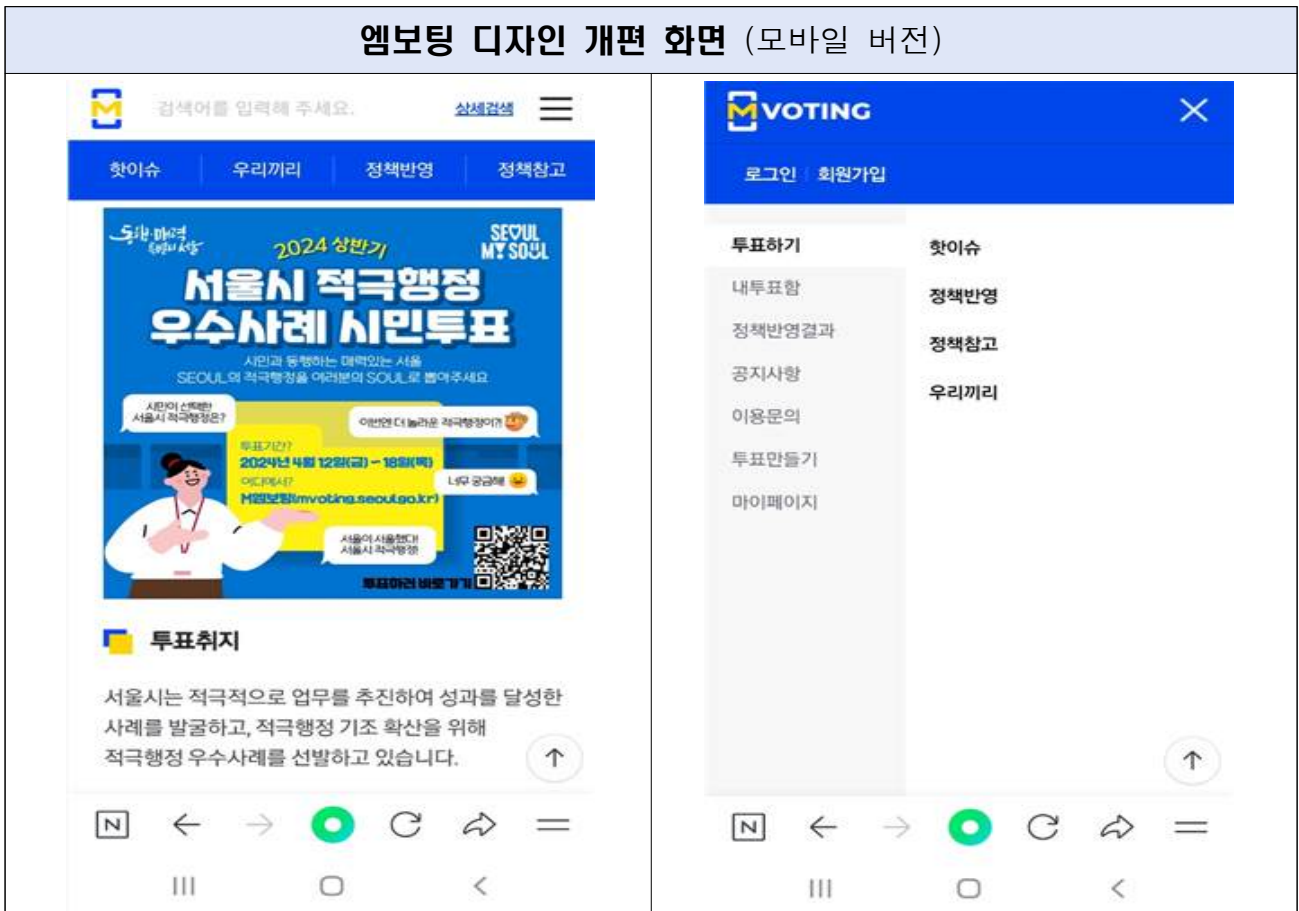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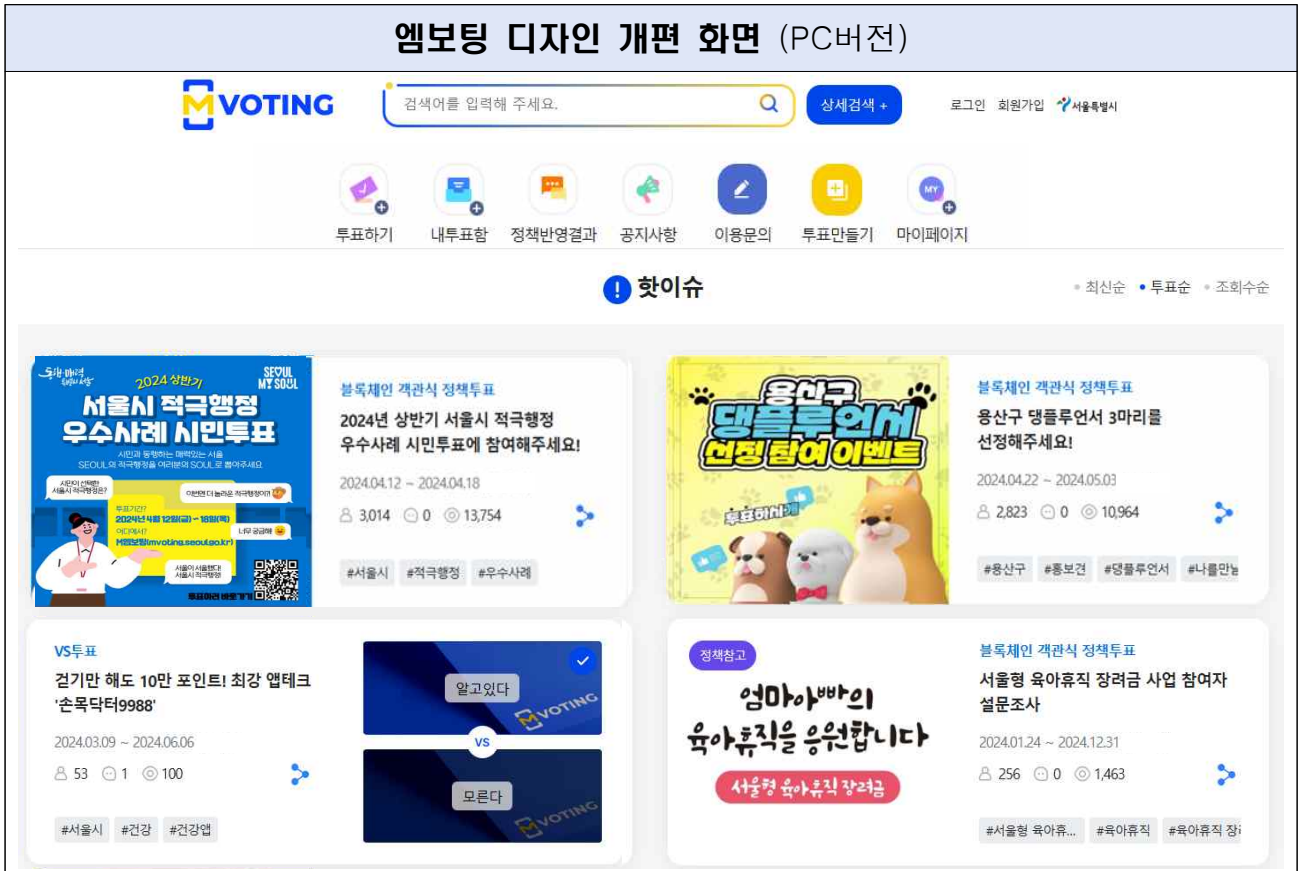
- 서울시는 시·자치구, 교육청 등에서 일반 시민 대상 전자투표나 콘퍼런스, 지역축제 등의 특정 장소 및 특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깜짝 이벤트 투표, 시민들끼리 하는 소규모 모임 투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도록 엠보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엠보팅을 통해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정책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엠보팅을 시민의견 수렴창구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시즌별 이벤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엠보팅 디자인 개편화면.

2.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시민 A씨는 아이 등굣길에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폴 설치’ 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서울시 전자투표시스템 엠보팅에 참여했다. 한달 후 스마트폴이 실제로 설치된 것을 보고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과 또 투표결과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사실에 뿌듯해졌다.

붙임1) 엠보팅 디자인 개편 화면



붙임2)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